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1. 24.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 2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뵈올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후렴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 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 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 6 나сар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말씀 나눔

----- 응답을 지체하시는 예수님 -----

인도자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취하셨던 행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듣고도 그 간구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황이 매우 다급하여 서둘러 사람을 보냈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다급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간구하거나 바라는 것들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을 지체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통해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어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째,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11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급하게 무엇을 간구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그 지체된 응답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당장의 고통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인내로써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급하고 정신없이 응답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예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내게 문제가 생겼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간구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지체된 응답에 인내할 줄 아는 자는 인내의 훈련을 통과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되고 그분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지체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확실히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자부하며 지도자를 자칭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이나 그냥 미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든 그 응답과 능력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응답이 지체된 경우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의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비록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사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만 전념하셨습니다. 극적인 효과만 노려서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집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 모친 마리아가 간구하자 주님께서서는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인간의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지체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응답이 지체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야 했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귀에 들려지고 그가 예수님을 죽여야 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려는 하나님의 때가 숨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9~53절 “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와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순종하여 모든 문제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

다같이

- 1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응답받은 기도제목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나눠주세요.
- 2 나의 삶에서 인내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혹은 습관대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나요?

중보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같이

- 1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 2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도록
- 3 질병과 경기 침체, 전쟁과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 4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무리 기도

다같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